혁신도시 효과 나주, 두달 연속 인구 증가

빛가람동 주민센터 100번째 전입세대 기록

213명 늘어… 아파트 입주 잇따라 계속 늘듯

나주 혁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증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100번째 전입신고 세대를 기록했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나주시의 인구가 올 들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문을 연 빛가람동 주민센터에 100번째 전입세대 신고가 이뤄지면서 3일 현재 101세대 278명이 전입을 마쳤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 전입자는 13세대 38명, 수도권을 제외한 관외는 50세대 137명으로 전체의 63%가 외부에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의 총인구 역시 2월말 현재 8만7967명으로 지난해 말 8만7754명에 비해 21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67년에 25만여명을 기록했던 나주시 인구는 1980년에 18만5910명으로 20만명선이 붕괴됐고, 2005년 9만8770명으로 10만명선이 붕괴된 이래 매년 수백 명씩 감소해왔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LH 휴먼시아 4단지(602가구) 입주에 이어 5월에는 2단지(624가구), 9월에는 8단지(1029가구)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LH 공사 및 민간아파트 1만여가구의 입주가 줄을 이을 예정이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기대된다.

또 유치원과 빛가람 초·중학교, 봉황고가 지난 3일 개교행사를 갖고 수업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교육시설은 유치원 3곳, 초등 5곳, 중등 3곳, 고교 2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지난 3일 100번째 전입신고를 한 임미순(여·47)씨에 대한 환영행사를 가졌다.

임씨는 "100번째 전입 신고자로 기록돼 기쁘다. 개업한 꽃가게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담양 '죽향딸기' 홍보

서울·경기서 페스티벌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죽향(竹香)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판촉전에 나선다.

담양군은 7~9일 사흘간 서울과 경기지역 유명백화점 11개 지점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죽향 딸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현대백화점 본점과 무역센터점·목동점·신촌점·천호점·미아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청담점·경기점·의정부점 등 11개소이다.

이번 행사는 시식행사와 함께 죽향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리플렛을 배부하고 딸기 실물 표본을 선보인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청소년 안전한 학교생활

광양경찰-광양Y, 협약

광양경찰(서장 장효식)이 지역 청소년의 행복한 학교생활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광양경찰과 광양 YMCA는 지난 4일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양경찰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없는 학교생활과 내실있는 예방교육에 나서며, 광양YMCA는 청소년 상담실과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게가 물려고 해"

순천~완주 고속도로 황전휴게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휴게소내 '순천만 트릭 아트공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아트공원은 포토존 3개소와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소개한 사진 6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 2개로 구성돼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도, 유관기관과 함께 中企 고충 해결 나선다

11일 영암 시작 매달 애로현장 순회 간담회

전남도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22개 시·군을 직접 돌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에 나선다.

도는 5일 "오는 11일 영암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오봉 경제부지사 주재로 매달 1~2회씩 중소 내수·수출기업 애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수·수출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는 전남도가 기업 지원 유관기관(중기청, 조달청, 중진공, 전남신보,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단을 편성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하는 사업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한 후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판로 지원 78건, 수출 관련 76건, 인력문제 63건, 자금 56건, 환경 개선 49건, 규제 14건, 기타 130건 등 모두 466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465건이 해결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는 등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애로 1순위인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홈쇼핑 판매, 지역신문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 판촉,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일자리 취업박람회, 여성취업 및 창업 박람회,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자 간 연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수·수출 중소기업 애로현장간담회를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내수 및 수출기업의 품질 향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여행 블로그' 종합대상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공공부문

지난해 60만명 방문

전남도 관광 공식 블로그인 '남도여행 블로그'(blog.naver.com/namdokorea)가 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주최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블로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조직의 SNS 활용 및 온라인 홍보 부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처음 제정됐다.

공공부문은 총 5개 분야로 중앙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특별기관별 대상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공공부문 기관에 종합대상을 수여한다. 전문가와 교수, 전년도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네티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남도여행 블로그'는 지난 2006년 5월 개설됐으며 8년간 5000여편의 다양한 전남 테마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 정보를 게재, 185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블로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SNS서포터즈 운영,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등을 통해 1년 방문객 6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정부 3.0시대에 블로그와 함께 도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남도여행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매체 홍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도 전남의 테마별·계절별 관광정보를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만들어 관광객과의 소통 및 공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에 캐러밴식 오토 캠핑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갖춰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에 캐러밴식 오토 캠핑장〈사진〉이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신형 캐러밴(캠핑카 트레일러) 20대와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토 캠핑장(4688㎡ 규모)을 조성했다.

또 테마파크내 풋살 경기장과 홍길동 생가, 산채 등의 각종 시설의 이용과 관람이 가능해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캐러밴 이용 가격은 성수기(5~10월)에 ▲4인실 8만원(주말 10만원) ▲6인실 10만원(주말 12만원)이며, 비수기에는 ▲4인실 6만원(주말 8만원) ▲6인실 8만원(주말 10만원)이다.

예약은 위탁 사업자인 휴파크(대표 정덕진) 홈페이지(www.hupark.com)를 통해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